

창설 후 첫 동원훈련을 마치며



지난 21일 우리 화랑사단의 핵심 부대인 사자여단의 동원훈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정상화된 동원훈련이기에 여느 때의 훈련보다 더욱 세심하고 정성 어린 준비가 필요했다.

특히 우리 군수지원대대는 2019년 12월 이후 정상화된 동원훈련을 처음 시행했다. 전시 병력의 50% 이상을 동원해야 하는 특성상 많은 인원이 동원예비군으로 입소해 훈련해야 하기에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했다.

이번 동원훈련 간 입소한 자원 중 45%가 비적소 인원으로 편성돼 있었고, 군수지원대대 경험이 전혀 없는 인원이 60%로 자신의 직책과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았다. 설상가상 코로나19가 심각했던 기간에 현역 군 생활을 했던 인원이 대부분으로, 일부는 훈련소 이후 사격을 처음 해 보는 인원이 있을 정도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대장으로서 신병을 교육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했다. 동원예비군들에게 주어진 직책을 이해시키고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 주는 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계획했다.

또 간부들과 용사들까지 훈련이 계획대로 잘 이뤄지도록 임무·지휘 기반의 동원훈련 예행연습을 했다. 동원예비군들은 오로지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정성스럽게 훈련을 준비했다.

동원훈련이 시작되고, 즉각 임무 수행을 위한 최적의 교육을 하고자 실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기보대대와 전차대대로 이동했다.

현장에서 실장비에 대한 근접정비와 보급을 시행했으며, 행동화 훈련 위주의 강도 높은 교육을 했다. 그러나 기본적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언어 사용을 통해 강한 교육훈련에도 거부감 없이 임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MZ세대 특성에 맞춰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니 동원예비군들도 매우 책임감 있게 훈련에 임했다.

우리 군수지원대대원들은 정성 들여 최상의 동원 훈련 준비를 했고, 우리의 전우로 입소한 동원예비군들은 준비한 훈련계획에 맞춰 적극 동참했다. 당장 전쟁이 발발해도 부여된 직책에 맞게 즉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현역과 동원예비군 모두가 얻었다.

우리는 앞으로도 동원예비군들이 우리 군수지원대대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갖도록 해 유사시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한 최상의 동원 즉응태세를 완비해 나가겠다.

※ 본 지면에 게재된 글들은 본지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국방일보

발행인 채일 편집인 기국간

1964년 11월 16일 창간(일간) | 2010년 7월 1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337 | 인쇄인 장대환

독자관리 발송문의(구독신청 주소변경) 02-2079-3851~2 | 팩스 02-757-9309 인터넷 kookbang.dema.mil.kr | 04353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편집팀	편집 02-2079-3770-85 교열 02-2079-3791~4	군947-3770-85 군947-3791~4
취재팀	취재 02-2079-3730-42 사진 02-2079-3760-3	군947-3730-42 군947-3760-3
디지털콘텐츠팀	02-2079-3710-4	군947-3710-4
광고문의	02-2079-3124	군947-312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그냥 할까요



기차를 타고 가다 오송역을 지나는데, 문득 10년 정도 KTX를 타고 세종과 인천 검암을 오가며 출근하던 지인이 생각나 안부 문자를 보냈다. 10년 정도를 오갔으니 체력도 체력이고 아마 힘이 들어 지금쯤 방법을 찾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그는 지금까지도 두 도시를 오가며 출퇴근한다고 했다. 집안 사정 탓에 한 곳에 정착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다는 답이었다. 문득 그가 대단하게 느껴졌다. 어떻게 그 거리를 매일 출퇴근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답했다. “그냥 하는 거지. 별생각 없이.”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다.

돌이켜 보면 나는 묵묵히 할 일을 하긴 했지만, 늘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세워 둔 일정을 되도록 잘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스스로 만들어 둔 기준 탓에 스트레스도 받았다. 그러다 보니 다 해내지

못하면 실패한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런데 뭐, 삶이 그런가. 하고 싶지만 못하기도 하고, 할 수 없어 보이는데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

매일 아침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몸이 좋지 않아 매트 위에 서서 조금 망설였다. 그러다가 문득 10년 넘게 인천 검암과 세종을 오가며 출퇴근 중인 지인의 말이 생각났다. 그냥 하자는 생각도 뒤따랐다. 몸이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대로 조금씩, 그렇게 하자는 생각도 뒤따랐다. 그러자 잘하든 못하든 요가를 하는 오늘 시간도 지나갔다.

요가를 마친 뒤 나는 선뜻 ‘그냥’이라는 말에 마음을 내어 줬다. 그 단어는 내가 썼던 ‘묵묵히’보다 가벼웠고, 그러자 그 시간의 무게를 좀 덜어 주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 그렇게 ‘그냥’ 앞에 있는 일을 해 가다 보면, 어쨌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그 질문지를 받아 들게 된다면, 이 말을 덧붙여 주고 싶다. 묵묵히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자고. 내 앞에 주어진 일을 그냥 하고 있으면 그것이 내 루틴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모르는 새 내 앞에 어떤 형태로든 돌아와 줄 것이라고.

필요라는 긴급성과 당위성에 휘둘리지 않는 삶



‘나는 이 일을 왜 하고 있을까’ 잠시 멈춰서 내가 하는 일의 진정한 목적 점검할 필요 있어

여유가 있었다더라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필요’라는 긴급성과 당위성에 의해 내게 요청되는 일들을 처리하기만도 벅찬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처럼 필요 때문에 요청되는 삶만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필요 때문에 작동하는 인공지능(AI)이나 기계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삶이 허탈해지고 무기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자신을 잠시 멈추고 내가 하는 일의 진정한 목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나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일을 하

면서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지금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해 보지 않으면 우리의 목적은 그저 ‘필요’라는 긴급한 당위성에 늘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언제나 ‘필요’에 앞서 올바른 목적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올바른 목적을 위한 ‘필요’라면 우리는 그 필요를 채워 나가야 하고, 그 필요 때문에 요청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목적도 없이 그저 당장 필요하다는 긴급성과 당위성에 따라 내 삶이 움직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목적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는 데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를 진정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금 ‘필요’라는 긴급성과 당위성에 치여 내가 하는 일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정말로 자신에게 중요한 목적과 가치 있는 일에 ‘예’라고 답하기 위해, 그저 ‘필요’라는 긴급성과 당위성으로 무장하고 총공격해 오는 세상을 향해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